

독일 KG 선박투자회사 2년간 143억달러 투자 세계해운시장에서 최대 선박금융제도로 정착 한국에서도 선박금융은 은행의 신 수익창출원

독일 KG 선박투자회사들이 2003년과 2004년 2년간 총 143억 달러를 투자하여 332척에 대한 선박금융을 실시함으로써 세계해운시장에 최대의 선박금융을 공급하는 금융제도로 정착했다.

Lloyd's List에 따르면, KG 선박투자회사들은 소규모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주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년간 투자된 컨테이너선은 181척, 58만 2,000 TEU에 달하고 있다.

KG 제도에 의하여 설립된 17개의 선박투자회사 중에서 2004년 1년간 가장 많은 투자실적을 기록한 업체는 HCI 및 MPC Capital로서 이들 기업은 주로 소규모 투자자들에 지분을 매각하여 선박 1~2척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선박금융펀드를 조성했으며, 이같이 조성된 펀드는 대상선박 가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반금융기관의 용자제도를 활용하여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 KG 제도에 의한 선박금융의 41.5%를 차지하고 있는 MPC Capital의 경우 P&O Nedlloyd사의 중고선 14척을 21억7,000만달러에 매입한 이후 채용선함으로써 막대한 수익률을 확보했다.

MPC Capital 이외에도 MSC사에 6억4,100만 달러 및 에버그린(Evergreen)사에 6억3,400만 달러 등을 투자하여 중고선을 매입하고 이를 선사에 채용선했다.

MPC Capital은 현재 38개 선사와 중고 컨테이너선 매입 및 채용선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체 투자 규모는 6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홍콩의 자금시장 전문잡지 베이시스포인트는 최근 한국에서 선박금융이 은행 수익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베이시스포인트 최근호는 한국은 상반기에만 여섯 건에 1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선박금융계약이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선박금융 수요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박금융 수요의 증가가 은행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명실 상부한 채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시스포인트는 상반기에 선박금융을 주도했던 은행은 삼성중공업에 2억8,400만달러의 차환보증을 한 DBS은행이라고 밝혔다.

이 잡지는 “최근 한국가스공사의 8억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의 선박금융에 국내 메이저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 곧 있을 한진해운의 신규계약도 금융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시스포인트는 올 상반기 선박금융의 주요 수요처로 유코카캐리어와 한진해운 현대상선을 들었고 창명해운과 대림 등 소형 선박회사들도 한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잡지는 이어 소형 선박회사들의 금융수요는 대형선박회사들의 계약이 몇몇 대형은행에 국한돼 있는 반면 중소형 은행들에게도 새로운 수익창출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